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시론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notdoing@hanmail.net

- I. 머리말
- II. 기존의 시기구분 인식
- III. 사료 분석과 시기구분
- IV. 시기구분의 시론적 검토
- V. 맺음말

요약문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크게 쇠퇴론과 전·후기론, 두 가지 시기구분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시대 불교 500년의 역사는 이 두 가지 단편적 시기구분 인식이 뒤섞여 형상화돼 왔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탄압에 따른 필연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부흥하였다고 하는 서사(敍事)는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 인식과 역사상은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민주의, 민족주의, 호교주의, 단선적 역사발전론 등의 근대적 관념이 영향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가하시 토오루는 『이조 불교』를 통해 쇠퇴론과 무력론의 관점으로 조선시대 불교사를 형상화하여 큰 영향을 미쳐 왔고, 해방 이후에도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 조선후기 불교계의 부흥이 주로 강조돼 왔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불교사 자료는 종류가 많고 양도 많다. 여러 종류의 불교사 자료들을 그 성격에 유의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사의 지속과 변화 양상에 대한 여러 정보

들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불교정책 노선의 변화가 거듭됐고 간행불전, 승려문집, 고승비 등의 여러 불교사 자료의 생산 자체의 변화가 집중됐다는 점과 19세기에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러 자료의 생산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에 불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되 불교정책 변화와 불교계의 동향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를 15세기의 조선초기, 16세기~17세기전반의 조선중기, 17세기후반~18세기의 조선후기, 19세기의 조선말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이러한 4시기 구분론은 조선시대 불교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설(假設)한 것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심화·확장돼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쇠퇴론, 전후기론, 조선중기, 조선말기,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I. 머리말

시기구분은 역사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현실을 곡해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언어가 현실을 분별(分別)함으로써 인식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기구분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첫 번째는 태종·세종대의 억불정책 이후 조선 불교계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며, 두 번째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약을 계기로 조선후기 불교계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다. 첫 번째는 조선 초의 불교정책에 따른 불교계의 필연적 쇠퇴를, 두 번째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부흥을 강조하는 인식인데, 어떤 인식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6세기를 가장 침체한 시기로 해

석하기도, 19세기를 가장 침체한 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불교 500년 역사의 이해는 쇠퇴론, 전·후기론과 같은 단편적인 시기구분 인식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불교사의 연구 부진에 기인한다.¹⁾ 해방 이후 조선시대 불교 연구가 불교학계 및 역사학계에서 소외됨에 따라, 시기구분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 없다.²⁾ 일제강점기의 근대 불교학자에 의해 형상화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이 오늘날까지 재생산돼 왔으며, 시기구분 인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상 및 시기구분 인식이 당대의 자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식민주의, 민족주의, 호교주의, 단선적 역사발전론 등의 근대적 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불교의 실상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³⁾ 기존의 역사상으로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여러 종류, 많은 양의 불교사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시기구분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불교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의 가능성을 시론(試論)해 보고자 한다. 시기구분의 가설(假設)을 통해 역사 현실의 이해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시기구분을 부정하고 새로운 입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거대 담론에 기댄 ‘시대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현재의 일반적 시기구분 인식이 기존의 연구 관점과 방법이 점철돼

- 1) 조선시대 불교사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김상현, 2002, 「朝鮮佛敎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용태, 2013,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참조.
- 2) 조선시대 불교사의 시기구분은 다카하시 토오루 이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高橋亨, 1929, 『李朝佛敎』, 寶文館), 근래에 와서 김용태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pp.27-29).
- 3) 김용태, 2010, 앞의 책; 이종수, 2010,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손성필, 2013a,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정미, 2015, 「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設行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 4) 손성필, 2014b,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형성된 산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객관적 방법론과 새로운 관점을 통한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의 모색이 가능함을 논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II. 기존의 시기구분 인식

조선시대 불교사의 시기구분은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⁵⁾ 그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최초의 종합 연구서인 『이조불교(李朝佛敎)』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국가(國家)의 교정(敎政)’, ‘종지(宗旨)와 전등(傳燈)’, ‘교법(敎法)의 성쇠(盛衰)’라는 세 가지 관점의 시기구분론을 제시하였다.⁶⁾ 우선 승정체제(僧政體制) 유지, 승과 시행, 승직·승계 제수 등을 기준으로 연산군대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승정의 시행 여부를 ‘종교(宗敎)’의 ‘공인(公認)’ 여부로 해석하여 연산군대 이후에는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은 명종대의 승정체제 재시행, 임란 이후 승직 제수의 상례화와 새로운 승정체제의 구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근대 이전의 불교를 ‘종교’라는 근대적 개념으로 재단하여 ‘공인’과 ‘비공인’이라는 이분법적 종교정책의 틀로 해석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종교 공인과 비공인의 이분법은 서구의 역사적 전통에 토대를 둔 인식이므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다카하시는 ‘종지와 전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는 선조대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우선 종지의 관점에서는 조선 초에는 선·교의 양종이 따로 있었으나 휴정(休靜)이 출현한 이후 선교겸수가 조선불교의 종지가 되었으므로, 선조대를 기점으로 종지가 선교의 병립에서 선교의 겸수로 변화하였다

5) 高橋亨, 1929, 앞의 책; 김용태, 2010, 앞의 책, p.27.

6) 高橋亨, 1929, 앞의 책, pp.26-29.

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 초 선교양종체제기에 활동한 기화(己和)는 선종 소속의 승려였지만 선교점수의 사상적 경향을 가졌던 것처럼,⁷⁾ 국가 승정체제인 ‘선교양종’과 사상 경향인 ‘선교점수’는 동일한 범주의 개념이 아니므로,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등’의 관점에서는 성종·연산군대의 폐불적 상황에서 태고 보우(太古普愚)의 범맥만이 유일하게 휴정과 선수(善修)에게 전승되어 그 범손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보아, 선조대를 기점으로 하여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은 17세기 전반에 형성된 불교계의 정통성 인식인 임제태고법통설(臨濟太古法統說)을 역사적 사실로 본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다카하시는 ‘교법의 쇠쇠’를 기준으로 개국 초부터 성종대까지를 제1기, 연산군대부터 인조대까지를 제2기, 효종대부터 조선 말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였다. 교정, 종지, 전등을 기준으로 한 앞선 시기구분들이 타당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제시한 이 3시기 구분론은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 비록 ‘교법의 쇠쇠’를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교법’이 무엇이고, 그 ‘쇠쇠’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각 시기에 따라 승정(僧政)을 언급하기도 하고, 명승(名僧)의 배출, 풍기(風紀)의 쇠퇴, 승군(僧軍) 활동을 언급하는가 하면, 승려의 지위 저하, 진승(眞僧)의 기골(氣骨), 사찰의 명맥 유지를 언급하기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기준인 교법의 개념은 분명치 않지만, 다카하시의 제1기에서 제3기로 감에 따라 교법이 점차 쇠퇴해 갔다고 보았다. 문맥을 통해 볼 때 결국 불교계 전반이 점차 쇠퇴해 갔다고 본 듯하다. 그리고 『이조불교』 서설의 말미에 ‘이제 제1기로부터 차례로 교법이 쇠퇴해 간 자취를 서술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이 3시기 구분론을 통해 『이조불교』를 저술하여 조선 시대 불교를 후대로 갈수록 쇠퇴하여 종교·사회적 기능을 상실해 간 역사로 형상화하였다.

7) 박해당, 1996, 「己和의 佛敎思想 研究」, 서울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다카하시가 세 종류의 시기구분을 제시하였으나 『이조불교』를 3시기 구분론에 의거하여 저술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에 대한 그의 기본 입장은 3시기 구분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논했듯이 3시기 구분론은 그 기준이 분명치 않을뿐더러, 조선시대 불교가 점차 쇠퇴해 갔다거나, 필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념이 반영된 시기구분론이었다. 예컨대 다카하시는 제3기를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승려의 지위가 하락하여 ‘인외(人外)의 천류(賤流)’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근래에 밝혀진 바와 같이 승려는 여러 신분이 수렴된 복합적 계층으로서 승려천인신분설 자체가 근거 없는 담론일 뿐이며, 조선후기에 승려는 호적에 등재되고 사제 간의 상속권이 법전에 규정되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된 계층이었다.⁸⁾ 곧 다카하시의 3시기 구분론은 ‘모호한 기준’과 ‘잘못된 근거’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가 점차 쇠퇴해 갔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기구분 입론이었다. 그는 이 시기구분론에 따라 『이조불교』의 서술 체재를 구성하였고, 조선시대 불교의 쇠퇴론과 무력론이라는 단선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이조불교』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지가 조선후기 사회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주장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사찰령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조불교』는 조선시대 불교사 전반을 논한 최초이자 유일한 저술이며, 이후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카하시가 쇠퇴론의 관점으로 『이조불교』를 서술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그의 관점과 논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돼 온 데에는, 『이조불교』가 방대한 자료의 섭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저술된 근대적 연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앞서 이능화(李能和)가 저술한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 한국 불교사의 주요 자료와 사건들이 일차 정리돼 있었거니와, 다카하시는 식민지 종교정책 입안과 고문헌 조사사업 등에 참여하여 여러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다. 이 여러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

8) 손성필, 2013b,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40, 보조사상연구원.

의 관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술한 『이조불교』는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역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 『이조불교』는 엄밀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자료의 성격에 대한 분석 없이 특정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인용하여 자신의 관점에 따라 논의를 전개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사족의 관점에 따라 기록된 실록과 문집의 일부 내용을 불교가 억압받고 쇠퇴하였다는 데 대한 논거로 확대 해석한 반면, 당시 이미 일본인 학자의 주목을 받은 다량의 조선시대 간행 불교전적, 이능화가 당시 조선시대 승려 천인신분설을 비판하면서 인용한 법전 등의 자료는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⁹⁾ 결국 실록, 불교저술, 사족과 승려의 문집 등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불교사를 재구성한 것인데,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일부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조합한 다카하시의 연구는, 실록과 문집에 개재된 사족의 관점, 그리고 근대적 관념과 일본불교의 시각이 혼재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을 창출해 냈다.¹⁰⁾ 그 역사상은 불교가 쇠퇴하여 종교·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3시기 구분론은 그 역사상을 체계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임의적 시기구분일 뿐이었다.

다카하시의 3시기 구분론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권상로는 압박절정(壓迫絶頂), 중간명멸(中間明滅), 유지잔천(維持殘喘)의 3시기로 조선시대 불교사를 구분하였고, 에다 토시오는 공인기(公認期), 점쇠기(漸衰期), 쇠퇴기(衰退期)의 3시기로 구분하였다.¹¹⁾ 권상로의 시기구분 명명에서도 보듯이, 다카하시로부터 비롯한 이 3시기 구분론의 특징은 조선 초 이래의 억압적 정책에 따라 불교의 쇠퇴가 필연적이었다고 본 것이며, 결국 이는 조선시

9) 江田俊雄, 1977, 『朝鮮佛敎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黒田亮, 1940,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이능화, 1920, 「朝鮮僧侶와 社會的地位」, 『朝鮮佛敎叢報』 20, 三木山聯合事務所.

10) 손성필, 2013b, 앞의 논문, pp.67-68; 다카하시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문제점은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상세히 논할 것이다.

11) 권상로, 1934, 『朝鮮佛敎史概說』(1998, 『退耕堂全書』 8, 전서간행위원회), pp.1146~1172; 江田俊雄, 1977, 『朝鮮佛敎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김용태, 2010, 앞의 책, p.28.

대 전체를 불교의 쇠퇴기로 일반화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다카하시의 3 시기 구분론은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를 세 시기로 나눈 시기구분 그 자체보다, 조선시대 전체를 불교의 필연적이고 결정론적인 쇠퇴기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체계적 시기구분론은 나오지 못했다. 조선시대 불교 연구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기구분 입론도 나오기 어려웠다. 다만 한국불교사, 한국사의 개설서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사의 시기구분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김영태는 한국불교사를 개설하면서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를 대체로 조선 초의 배불, 세조대의 승불, 성종대의 척불, 연산군·중종대의 폐불, 명종대의 부흥, 선조대의 암담한 승단, 휴정의 등장과 구국 흥법, 휴정·선수 문도의 계승이라는 순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¹²⁾ 이러한 불교사 서술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와 후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조선전기에는 정책에 따른 ‘억압’과 ‘부흥’이 반복되었으나, 연산군·중종대의 폐불기에도 ‘가냘픈 법맥’이 이어져 휴정에게 전승되었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흥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선후기에는 휴정의 문도가 번성하여 법맥이 계승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휴정의 등장과 임진왜란의 발발을 계기로 조선시대 불교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본 것이다.

이러한 김영태의 불교사 서술은 휴정의 출현과 임진왜란 발발 이후의 조선 후기 불교계를 침체와 쇠퇴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카하시의 쇠퇴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기론적 불교사 서술은 극심히 침체한 16세기 불교계 현실에서 영웅적 인물인 휴정의 출현과 우발적 사건인 임진왜란의 발발로 말미암아 조선후기적 성격의 불교가 출현했다고 형상화함으로써, 조선전기로부터 조선후기로의 불교사 전개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 불교계의 부흥, 휴정에게 전수된 가냘픈 법맥을 강조할수록, 임진왜란 이전의 16세기 불교계는 상대적으로 침체와 단절의 시기

12) 김영태, 1970, 「한국불교사」, 『한국문화사대계 11: 종교·철학사 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1986, 『한국불교사』, 경서원

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후기론적 불교사 서술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불교사의 주요 연구 자료가 상이하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 조선전기는 실록에 기록된 다량의 불교 관련 기사에 의거하여 국가의 불교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한 반면, 조선후기는 승려문집과 고승비를 통해 다량 생산된 행장, 비명 등의 승려 전기 류에 의거해 불교계 법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조선전기에는 실록에 불교 관련 논의 기사가 많은 반면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 자체가 드물었고, 조선후기에는 실록에 불교 관련 논의 기사가 적은 반면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성찰 없이 각 시기에 다량 생산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한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 자료의 차이에 따라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사이에 발생한 역사상의 간극을 조선후기에 형성된 정통성 인식인 임제태고 법통설을 역사적 사실로 수용함으로써 해소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곧 연산군·중종대의 폐불적 상황에서 휴정으로 이어지는 단일 법맥을 통해 불교 전통이 계승될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상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크다.

해방 이후의 조선시대 불교사 서술은 대체로 위와 같은 전·후기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시대 불교사를 전·후기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기는 불교 학계와 역사학계가 마찬가지였다. 조선중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연구도 있으나, 조선시대사의 시대구분론에 따라 불교계 동향을 서술한 것이거나,¹³⁾ 조선 후기 불교의 출발점으로서 휴정과 그 문도의 활동을 논한 것이었다.¹⁴⁾ 근래에 비교적 활성화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도 대체로 전·후기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용태는 조선후기 불교사를 논하기에 앞서 다카하시의 3시기 구분론을 비판하고 새로

13) 이봉춘, 1998,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 조선중기 사회와 문화』 31, 국사편찬위원회.

14) 김용태, 2000, 「朝鮮中期 佛敎界의 변화와 ‘西山界’의 대두」, 『한국사론』 44, 서울대 국사학과; 대한 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2004, 『曹溪宗史: 고종세편』, 조계종출판사.

은 시기구분론을 제시하였는데, 개국 초부터 성종대인 15세기 말까지를 억불기, 16세기 전반의 연산군과 중종대를 폐불기, 양종이 일시적으로 복립되고 임진왜란을 겪었던 16세기 후반을 존립모색기, 17세기 이후를 존립기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존립기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구별하여 전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¹⁵⁾ 이러한 그의 시기구분은 전·후기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나, 명종대의 선교양종 복립을 불교계의 인적 계승과 존립을 가능케 한 계기로 보아 16세기 후반을 존립모색기로 설정하였고,¹⁶⁾ 17·18·19세기 불교사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에 대해 한층 진전된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종수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수행체계인 삼문수학을 중심으로 17·18·19세기 불교사상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함으로써 조선시대 불교사상사 이해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제시하였다.¹⁷⁾ 이러한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다카하시 이래 형성된 조선시대 불교 쇠퇴론, 특히 조선후기 불교의 사회적 무력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사료의 실증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불교사의 시기구분은 다카하시로부터 비롯한 3시기 구분론과 해방 이후의 전·후기 2시기 구분론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시기 구분론은 조선 초의 억불정책에 따른 결정론적 쇠퇴론이라는 점에서 시기구분론이라기보다 조선시대 불교 전반의 쇠퇴론과 무력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전·후기 구분론은 정치 사건과 휴정 범통 중심의 불교사 인식으로서 조선 전기와 후기 불교사의 전개가 단절되는 한계를 내포한 시기구분론이자 일반적인 조선시대 시대구분론에 편승한 시기구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도 이 두 가지 시기구분 인

15) 김용태, 2010, 앞의 책, p.29.

16) 김용태, 2010, 앞의 책, p.45; 정병삼도 일찍이 명종대의 불교정책이 조선후기 불교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정병삼, 2005, 「16세기 조선불교계의 변화」, 『이근수교수학갑기념논문집』 역사와 개혁, 시간의 물레).

17) 이종수, 2010,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식이 혼재하여 형상화돼 왔다. 조선시대 불교 전반이 침체했다는 인식과 극심히 침체한 불교계가 임진왜란 발발과 휴정의 등장을 계기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시기구분론의 한계는 연구관점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앞서 논했듯 사료의 종류와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인용하거나, 각 시기마다 상이한 사료를 중심으로 불교사 전개를 논한 연구방법에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 이 두 시기구분론으로는 조선시대의 주요 불교사 사료인 관찬편년사서, 법전, 불교저술, 간행불전, 승려문집, 고승비 등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의 복합 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III. 사료 분석과 시기구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는 이전 시기에 비해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다. 교학 저술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이는 비단 조선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으며, 방대하게 저술된 관찬편년사서류가 현존하고, 유례없이 다량 간행된 불교전적들도 도서관에 산적해 있다. 편찬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국가 및 사족이 편찬한 관찬편년사서, 법전, 호적, 양안, 의궤, 지리지, 읍지, 문집, 일기, 필기 등이 있으며, 불교계 및 승려가 생산한 불교저술과 간행불전, 승려문집과 고승비, 사찰사적과 고문서, 불교건축과 미술 등이 있는데, 그간 이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도, 사료의 성격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못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종류와 양이 적은 고려 이전 시기의 불교사 연구와는 다른 환경이지만, 부정적 선입관에 따라 단편적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자료를 그 성격에 유의하여 해석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과는 사뭇 다른 역사상이 드러난다.¹⁸⁾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를 세심히 검토해 보면, 특정 자료가 특정 시기부터 생

18) 손성필, 2014b, 앞의 논문.

산되거나 급증하기도 하며, 생산이 감소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자료 내용의 해석은 응당 수행되어야 할 연구방법이나, 그에 앞서 자료 자체가 어떤 이유로 생성되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데,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는 그 생성 추이 자체에 흥미로운 변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실록과 법전 등의 관한 자료를 통해 국가 불교정책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불교정책 노선 또는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는 시기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가가 불교를 일관되게 탄압하려 했다거나, 국왕의 신앙에 따라 불교정책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하는 기존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전개 양상과 주요 불교사 자료의 생산 추이를 도표로 대략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⁹⁾

〈표〉 조선시대 불교정책 전개와 불교사 자료 생산의 종합 추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승정체제기		불교정책 혼선기			불교정책 안정기	불교정책 비논의기
승정체제 개혁	선교양종체제	교화론적 불교정책	선교양종체제 복구	불교정책 절충	불교정책 안정	불교정책 비논의
전국지리지 사찰 등재						
왕실·관관 불전 간행						
		사찰판 불전 간행 급증·유지				불전간행 감소
		승려문집 편간				문집편간 감소
		고승비 건립				고승비건립 감소
		승려 호적 등재				
몽산덕이 관련 불전 간행						
		이력과정 불전 간행				
		이력과정 불전 사기류 저술 편찬				
조선초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조선말기	

19)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3-29; pp.40-43; pp.117-139; pp.163-169; pp.201-214; pp.256-261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우선 실록, 법전 등의 관찬자료를 통해 볼 때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변화 추이는 위와 같이 뚜렷하였다. 시기에 따라 불교정책의 논의 대상, 내용, 조치 등이 변모하였는데, 이를 종합해 볼 때 15세기는 승정체제기, 16세기에서 17세기 중엽까지는 불교정책 혼선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는 불교정책 안정기, 19세기는 불교정책 비논의기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세종대의 개혁 이후에도 국가관료체제의 일부인 선교양종의 승정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불교정책은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16세기 초 연산군의 폭정으로 갑자기 승정체제가 붕괴된 이후, 중종대에는 성리학적 교화론에 의거하여 불교계를 방임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승려와 사찰이 증가하는 등 교화론적 정책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다가, 명종대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선교양종체제가 복구되었으나, 선조대에는 다시 불교계를 방임하는 교화론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²⁰⁾

그러나 임진왜란의 승군 활동을 계기로 승려가 국가에 무익하다는 현실적 명분이 붕괴됨으로써, 승려와 사찰은 점차 국가체제 내로 수용되어 갔다.²¹⁾ 17세기 중엽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면서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는 안정된 양상을 보이나, 18세기 후반부터 승려가 줄어 사찰 관리가 어렵다는 기사가 등장하며, 19세기에는 사찰이 쇠잔해 가는 데 대한 정책적 논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종대의 『동국여지승람』 이래 조선시대에 편찬된 전국지리지를 살펴보면, 점차 사찰보다 암자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사찰이 적어도 1,500개소 이상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서원과 사우 약 900개소를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²⁾ 이처럼 관찬 자료를 통해 볼 때, 특히 16세기의 불교정책 변모와 19세기의 불교계 쇠락이 주목되는데, 특히 16세기의 현실은 중종대를 폐불기, 명종대를 불교 중흥기, 임란 이전의 선조대를 재침체기로 본 기존의 불교사 인식과는 크게 다르므로,

20)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50-116.

21)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75-214.

22)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41-42.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전 불교전적을 통해 볼 때 국가와 왕실은 16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 불교전적을 간행하지 않은 반면, 사찰판 불교전적의 간행량은 중종대 중엽인 1530년대부터 급증하였고, 임란 이전의 선조 전기인 1570~80년대에 또 간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란 이후 17세기에는 그 간행량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8세기에 다소 감소하며, 19세기에 이르면 현저히 감소하였다.²³⁾ 이러한 사찰판 불전 간행량 추이는 16세기, 특히 16세기 전반을 폐불기라고 규정할 만큼 불교계의 극심한 침체기였다고 보거나, 불교정책에 따라 불교계가 부침을 거듭한 시기였다고 본 기존의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찰의 불전 간행량 추이는 불교정책과는 별개인 양상이었던 한편, 불교계의 침체기라고 알려져 있던 임란 이전의 선조 전기에 가장 활발히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전 간행량의 추이가 불교사 전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당시 불교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간행된 불교전적을 통해 당대의 사상 경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불교전적이 다량 간행되었기 때문에, 불전 간행량을 통해 사상 경향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에는 『법화경』과 『부모은중경』, 몽산 덕이(蒙山德異) 관련 불전, 이력과정(履歷課程) 불전, 수륙재의식집의 다량 간행 경향이 뚜렷했다. 『법화경』과 『부모은중경』, 수륙재의식집의 간행은 대체로 지속된 경향을 보인 반면, 15세기에 간행되던 몽산 덕이 관련 불전은 16세기에 다량 간행되었으나 17세기 중엽 이후 간행되지 않았고, 이력과정 불전은 16세기 후반에 다량 간행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²⁴⁾ 또한 17세기 중엽에 이력과정 불전에 대한 사기류 저술이 찬술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불교계의 보편적 강화체계로서 근현대에까지 계승된 이력과정의 형성과 확산 과정은 조선시대 불교사와 한

23)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119.

24)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29-162 ; pp.215-233.

국불교사 전개의 규명을 위해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 이래 편간되지 않던 승려문집은 16세기 후반에 다시 편간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편간되었고, 마찬가지로 조선 초 이래 건립되지 않던 고승비는 17세기 초반에 다시 건립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다. 조선 초 이전에는 극히 드물던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이 각각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시작돼 조선후기에 확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족의 문집 편간과 묘비 건립도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6세기에 조선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해 간 사족은 그 신분적 특권을 획득하거나 유지·강화하기 위해 도학, 문장, 충절, 관직, 계보적 정통성 등을 선양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문집, 묘비, 묘도문자, 족보 등을 통해 사족 사회에 천명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문중, 문파, 정파가 형성되어 결속하거나 분화하였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문집과 묘비가 조선 초 이전과는 다른 정치·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수 편간·건립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⁵⁾ 그러므로 이 시기 불교계의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도 당대 사족의 문집 편간과 묘비 건립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불교계는 문집 편간과 비석 건립을 통해 그 계보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파를 형성하여 결속한 한편,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 속에서 그 사회적 위상을 정립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초반까지는 문집과 비석을 통해 상이한 정통성 인식이 표명되는 한편 친분관계에 의해 승려문집 서문과 고승비문이 주로 찬술되었으나,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임제태고법통설이 보편적으로 천명되고 주로 서인 집권사족층이 승려문집 서문과 고승비문을 찬술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적 특징의 승려문집과 고승비, 정통성 인식이 17세기 중엽에 불교계에 수용·확산된 것이다.²⁶⁾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승려문집 편간과 고승비 건립의 양상을 통해 조선 불교계의 중요한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25) 손성필, 2014b, 앞의 논문, pp.394-399.

26)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169-174 ; pp.234-255 ; pp.267-280.

이처럼, 주요 불교사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불교사의 지속과 변화 양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위 도표에서 보듯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세기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인데, 다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속과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적인 불교사 인식은 16세기에 침체했던 불교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부흥하였다거나 활로를 모색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역사상으로는 위와 같은 지속과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폐불적 상황이었다고 알려진 16세기 전반에 불전 간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침체기였다고 알려진 임진왜란 이전의 16세기 후반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전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다. 고려 말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몽산 덕이 관련 불전들이 16세기에 다량 간행되다가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고, 임진왜란 이후 휴정의 문도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알려진 이력과정의 불전들은 16세기 후반에 이미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었다. 승려문집이 처음 간행되기 시작한 것도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후반이었으며,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승려문집과 고승비가 편간·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다.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우발적 정치 사건인 임진왜란 중심의 불교사 인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임진왜란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는 기존의 불교사 인식은 조선시대를 전·후기로 나누는 일반적인 시대구분 인식과 무관치 않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임진왜란기 승군의 활동은 불교가 국가에 무익하다는 명분이 무색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휴정, 유정 등의 승려들은 불교계 뿐 아니라 국가, 사족, 백성으로부터 명망을 얻게 되었고, 휴정과 선수 문도 중심의 불교계 재편은 가속화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 불교계의 이러한 변화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사회변동에 주목하는 조선 전·후기 시대구분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이전에는 침체했던 불교계가 전란으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라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역사상이 불교학계 뿐 아니라 역사학계에도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임에 분명하다 해도, 그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구분 관념은 조선 사회 여러 측면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조선전후기론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중기론이 제기된 것도, 조선전후기론으로는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가 점차 형성돼 간 16·17세기의 연속적 사회·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²⁷⁾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불교사의 전개 추이도 전·후기론을 기반으로 한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불교전적 간행, 승려문집 편간, 강학체계의 형성, 휴정 문도의 영향력 확대 등의 여러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후는 연속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정책은 16세기 이래 변화를 거듭하다가 17세기 중엽 이후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6세기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사회·사상 등의 여러 측면에서 조선초기적 성격의 불교가 조선후기적 성격의 불교로 이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불교사적 관점에서 조선초기, 조선후기와는 구분되는 시기의 설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 조선중기의 복합적 양상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선시대 불교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9세기의 불교계 쇠락 양상도 주목되는 점이다. 18세기 후반에 승려가 줄어 사찰이 퇴락하고 폐사해 감을 우려하는 기사가 실록에 처음 나타났고, 18세기 말에는 공무[公事]로 인한 승인(僧人)의 도성 출입까지 금지되었다. 아울러 불전 간행, 문집 편간, 고승비 건립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19세기에 실제로 불교계가 이전 시기에 비해 쇠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보인다. 다만 조선말기 불교계의 쇠락 양상을 조선 초 이래 억불정책의 결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조선시대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은 장

27)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조선중기론의 수용이 조선전·후기론의 폐기를 전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어떤 측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기구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시기구분으로 여러 측면의 변화를 모두 담아 낼 수 없음은 당연하며, 오히려 한 가지 시기구분만을 역사적 진실로 믿는 인식이 문제인 것이 아닌가 한다.

기간에 걸쳐 여러 요인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변모해 왔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불교 전체를 일반화하여 조선말기의 쇠락이 필연적이었다고 보거나, 다카하시의 식민주의적 관념과 같이 조선말기를 무력한 시대로 형상화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한편 조선말기에 연접한 근대의 지식인들이 당시 불교계의 쇠락상을 조선시대 불교의 일반적인 상태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기존의 역사상은 근대 지식인의 인식이 투영된 산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불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되 불교정책의 변화와 불교계 동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를 15세기의 조선초기, 16세기~17세기전반의 조선중기, 17세기후반~18세기의 조선후기, 19세기의 조선말기의 4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불교사 전개에 대해 시론해 보고자 한다.

IV. 시기구분의 시론적 검토

1. 조선초기: 15세기

태조대에서 연산군대에 이르는 15세기를 조선초기로 규정한다. 조선초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관료체제의 일부로 승정체제가 지속·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국가를 지향했지만, 불교에 철저히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선 초의 승정체제 개혁은 태종 5년(1405), 태종 6년(1406), 세종 1년(1419)에 이은 세종 6년(1424)의 개혁 조치로 귀결되는데, 국가 승정체제와 그 경제적 기반인 사사전, 사노비를 개혁한 이 조치들은 흔히 불교를 이념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탄압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 초의 이러한 조치들은 엄밀히 말해 국가체제의 일부인 승정체제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 화엄종, 조계종, 천태종 등의 종단은 단순히 불교계의 교단이 아니라 일종의

승정체제 소속 기구의 성격을 지녔으며, 사사전은 국가 지급의 면세전인 공전 이었고, 사노비 또한 공노비였다. 단순히 불교계의 교단과 사유 재산에 대한 탄압이었던 것이 아니며, 국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감축하고 납세 및 균역 인구를 확충하는 등의 목적을 지닌 국가체제 개혁의 성격이 지녔다.²⁸⁾ 다만 이 시기의 개혁이 국가와 불교계 간의 강고한 결속을 크게 약화시키고, 불교계에 심대한 충격을 준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교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탄압 조치가 아니었음도 분명하며, 불교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선 초의 개혁에 따라 선교양종으로 귀결된 승정체제는 연산군대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1424년 승정체제가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된 이후, 연산군 말기의 폭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80여 년간 선교양종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승과가 시행되었고, 승직과 법계가 제수되었으며, 도첩도 발급되었는데, 이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도첩은 승려 자격을 인정할 뿐 아니라 면역을 보장하는 공문서였는데, 송경 시험과 정전 납부를 통한 도첩 발급 제도는 유명무실했고 주로 궁궐·사찰 건축에 30일 가량 부여한 대가로 다량 발급되었다.²⁹⁾ 국가와 왕실이 직접 불전을 간행하고 언해한 것도, 공식적으로 국행(國行) 불교의례를 설행한 것도 바로 이 태조대에서 연산군대에 이르는 시기였다.³⁰⁾

조선초기 약 80여 년동안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간 간과돼 왔으나, 앞서 논한 다카하시 토오루와 에다 토시오의 시기구분을 통해 볼 때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 세조대, 성종대에도 선교양종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세종대에 신료의 비판은 국왕과 왕실의 불교 숭상에 대한 것이었을 뿐, 승정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종대 후반에 비로소 선교양종, 도첩제, 기신재 등의 혁파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지만, 신료의 거센 요구에도 성종은 윤

28)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3-25.

29)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5-27.

30) 박정미, 2015, 앞의 논문.

허하지 않았으며, 성종 23년(1492) 도첩 발급을 우선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간 승정체제의 유지는 간과돼 왔고, 국가의 억불정책, 국왕의 성향에 따른 승불과 억불, 성리학 이념에 따른 신료의 반대 등의 관점에 따라 조선초기 불교사가 형상화돼 왔다.

조선초기의 불교계 동향과 사상 경향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승정체제 개혁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불교계 동향 및 사상 경향도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하였는지, 무엇이 승정체제 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덜 받았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대체로 승정체제 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중앙 불교계, 승정체제와의 관계가 밀접한 사찰, 또는 국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찰이 아니었던가 한다. 역으로 지방 불교계, 승정체제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찰, 국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사찰은 그 영향을 덜 받았던 듯하다. 조선초기를 거치면서 읍치 안팎의 사찰은 많이 사라졌으나 명산대찰은 대체로 건재하였던 점,³¹⁾ 국가와 왕실의 불전 간행과는 달리 승정체제 개혁이 지방 사찰의 불전 간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³²⁾ 등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의 폭넓은 저변을 가진 사상이나 승단은 승정체제 개혁의 영향을 덜 받았고, 폭넓은 저변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 의존도가 높은 사상이나 승단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조대에 간경도감에서 여러 종류를 교학 불전을 집중적으로 간행했던 데 반해, 조선초기 지방 사찰에서 주로 간행한 것은 선서(禪書)였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 초의 승정체제 개혁은 대체로 교종 종단에 큰 타격을 미친 듯하며, 반면 당시 불교계에서 폭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던 주류적 사상 전통인 선은 비교적 타격을 덜 받은 듯하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의 간행 불전과 편찬 저술 등을 통해 볼 때, 고려 중기 이래의 주요 사상 전통인 보조 지눌(普照知訥)의 사상, 고려 말 주류적 사상 전통인 몽산

31) 양혜원, 2005, 「16세기 安東地域 佛教界의 量的 轉變過程과 그 意味」,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32) 손성필, 2013c,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서지학연구』 54, 한국서지학회, pp.368-369.

덕이의 사상 등은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유식과 같은 교학 전통은 점차 약화돼 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조선 초의 승정체제 개혁의 목적, 대상, 영향 등을 세심히 살펴 조선초기 불교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조선중기: 16세기~17세기전반

중종대에서 인조대에 이르는 16세기~17세기 전반을 조선중기로 규정한다. 조선중기는 국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 사상 전통의 계승과 창출, 불교계의 재편 등의 여러 측면에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로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말선초의 불교가 조선후기적 성격의 불교로 점차 변모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지속과 변화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선시대 불교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 오해로 점철돼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³³⁾

연산군대에 조선초기 국가체제의 질서가 와해되는 와중에 세종대 이래 유지돼 온 선교양종의 승정체제도 폐지되었다. 중종은 즉위 후에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연산군에 의해 폐지된 선교양종을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두고 왕실과 신료가 대립하였고, 결국 복구하지 못하였다. 중종대는 사림세력이 대두하는 한편 왕권이 약화됨에 따라 국왕과 신료, 훈척세력과 사림세력 간에 불교정책 노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 시기였다. 대체로 사림세력은 국가체제에서 불교적 제도를 제거한 후 백성과 승려들이 저절로 교화되기를 기다리는 정책을 지향하였으나, 훈척세력은 15세기와 같이 승정체제나 도첩제의 일종인 승인호패제 등을 통해 국가가 불교계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명종대에는 왕실과 훈척세력에 의해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복구되었고, 선조대에는 다시 사림세력에 의해 교화론적 불교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중종대 국가와 불교계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된 초유의 상황은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화론적 불교정책

33) 조선중기 불교에 대해서는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참조.

의 지향, 불교정책 혼선과 갈등에 따라 불교계는 사실상 방치·방임되었고, 불교계는 사적(私的) 경제 기반을 토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적어도 불교계의 여러 사상 전통이 일시에 단절될 정도의 억압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듯하며, 조선초기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목적, 대상, 영향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³⁴⁾ 일반적으로 가장 극심한 억불기로 인식되는 중종대와 임란 발발 이전의 선조대에 전국의 사찰에서 여러 불전이 다량 간행되었다는 점, 중종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1,650여 개소를 제외한 사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는 점 등은 당시 불교정책의 실상을 반추하게 한다. 그간 중종대 교화론적 불교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따라 불교계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로, 명종대는 불교계가 부흥한 시대로 형상화되어 왔다.³⁵⁾ 그러나, 승정체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와 불교계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불교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성리학 이념에 따른 교화론적 불교정책에 따라 그 밖의 조치는 거의 취해진 바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교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만한 조치는 거의 없었고 불교계는 다만 사적 영역에서 방치·방임되고 있었을 뿐이며, 중종대와 선조대에 불전 간행이 아주 활발했던 것처럼 불교계의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임진왜란은 불교정책 재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조정은 휴정에게 승군의 통솔을 맡겼고, 각 도의 승군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승군의 동원은 명종대 승정체제기에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정(惟政)·의엄(義嚴)·쌍익(雙翼)·법견(法堅)·처영(處英) 등은 전투·축성·협상 등의 여러 방면에서 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논공행상과 함께 승군의 통솔체제가 논의되었다.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교화론적 불교정책에 따라 승려를 국가체제에 배제했던 국가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그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34) 손성필, 2013d, 「조선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한국사상사학회.

35) 손성필, 2014a, 「虛應 普雨의 불교사적 위상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사람정권이 견지해 온 이념적 명분이 균열되었고, 피역층인 승려가 국방의 저해 요인이라고 주장한 현실적 명분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전공을 세운 승려에게는 승직과 법계, 도첩이 제수·발급되었다. 다만 국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선교양종체제의 복구를 우려해 선·교종 판사를 제수하지 않고, 도총섭과 총섭이라는 법제에 규정되지 않은 승직을 제수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이념적 명분은 고수하되 현실적 실리를 취하는 새로운 승정체제의 구축을 의미했다.³⁶⁾

이러한 조선중기의 정치적 배경 하에 불교계는 기존 사상 전통을 선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 가고 있었다. 다량 간행된 불전을 통해 볼 때, 고려 말 이래의 주류적 사상 전통인 몽산 덕이와 관련된 불전은 16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된 불전의 하나였으며, 17세기 전반까지 간행되다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한편 16세기 후반에는 이력과정 사집(四集) 교과에 해당하는 불전이 집중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해 17세기에까지도 지속되는데, 이는 기존 사상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사상 전통의 창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선교겸수를 특징으로 하는 강화체계의 중시는 벽송 지엄(碧松智嚴), 부용 영관(芙蓉靈觀), 청허 휴정과 부휴 선수로 이어지는 사승 계보의 특징이었다. 명종대에 선교양종판사를 역임한 휴정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러한 강화체계도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당시 승군 활동은 휴정과 선수 문도의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였다. 16세기 후반 최초로 스승의 문집을 간행한 것은 휴정이었으며, 17세기 전반 휴정과 선수의 문도는 문집 간행과 비석 건립을 통해 스승을 선양하고 문파의 정통성을 확립해 가고자 하였다.³⁷⁾ 문집과 비석을 통해 각 문파에서 세 가지 법통설이 천명되었는데, 불교계에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은 임제태고법통설이었으며, 강화체계도 사집, 사교(四教), 대교(大教)의 과정으로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이로써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청허·부휴계 문도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재편되며, 임제태고법통설, 이력과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선후기적 성격의 불교가 출현하게 된다.

36)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84-285.

37) 손성필, 2012, 「17세기 전반 高僧碑 건립과 조선 불교계」,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3. 조선후기 : 17세기후반~18세기

효종대에서 정조대에 이르는 17세기 후반~18세기를 조선후기로 규정한다. 조선중기를 거친 후 불교계가 안정되고 이른바 조선후기적 성격의 불교가 나타난 시기이다. 국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가 안정되었고, 청허계와 부휴계 문도, 임제태고법통설, 이력과정, 삼문수학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불전 간행, 승려문집 편간, 고승비 건립이 지속·유지되었고, 이력과정 교과의 이해와 강학을 위한 사기(私記)도 찬술되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는 조선중기를 거치며 창출된 조선후기적 특징들이 안정적으로 발현된 시기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³⁸⁾ 다만 이러한 여러 특징들 중 어떤 점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조선후기의 기점을 인조대, 또는 숙종대로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³⁹⁾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후기라고 지칭한다. 여러 정치·사회적 변동의 요인이 된 전란의 영향을 증시한 인식의 산물인데, 불교사의 경우 정묘·병자호란의 영향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임진왜란의 영향만이 증시돼 왔다. 그러나 조선후기 불교계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청허·부휴계 문도, 이력과정, 임제태고법통설, 불전 간행, 승려문집 편간, 고승비 건립 등의 특징 중에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지속된 것이 많다. 앞서 논했듯 청허·부휴계 문도의 영향력 확대, 이력과정과 유사한 강학체계의 형성, 사찰관 불전 간행의 증대, 승려문집의 편간 등은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또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모든 특징이 형성된 요인이 임진왜란이라는 정치적 사건만이 아님은 분명하다. 곧 임진왜란 이전으로부터의 지속과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양상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역사학계에서 조선중기론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임진왜란

38) 조선후기 불교에 대해서는 김용태, 2010, 앞의 책 ; 이종수 2010, 앞의 논문 등 참조.

39) 일반적인 조선시대사 정치·사회사의 시기구분 또한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반정으로 인한 서인세력의 집권을 증시하면 인조대를, 왕권의 강화와 환국정치를 증시하면 숙종대를 그 기점으로 본다.

40) 김성우, 2001, 앞의 책.

이 조선의 정치, 사회,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임에는 분명하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삼는 조선후기론 때문에 조선후기에 나타난 여러 현상의 원인을 임진왜란으로 돌리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 불교계의 경우, 왜란과 호란 이후의 17세기 중엽이 되면, 상기 전형적인 조선후기적 특징들이 안정화,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같은 변화의 부분적 ‘요인’보다는, 조선후기적 특징의 발현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한다면, 17세기 중엽이 조선중기와 조선후기를 구분하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우선 승직과 승군이 상례화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형성되어 17세기 전반에 정비된 승군 통솔체제가 조선후기에 지속된 것이다. 종묘·궁궐 조영과 산성 수축·관리에 승군이 동원되었고, 남한산성의 도총섭이 전국 각 도의 승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산성을 신축할 때 으레 사찰이 먼저 건축되었고,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사찰 근처에 세워져 승려가 이를 수호하였다. 최소한의 이념적 명분은 유지한 채 현실적으로 승려와 사찰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절충된 불교정책 노선이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백성이 승려로 출가하는 데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사라졌다. 도첩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은 반면, 임진왜란 말기부터 재정의 확보를 위해 발급되기 시작한 공명고신첩인 승 통정첩(僧通政帖), 승 가선첩(僧嘉善帖)이 계속 발급되었으며, 승려 소유 토지에 대한 사제 간의 상속이 법제적으로 보장되었다. 승려도 국역을 부담함으로써 승려가 피역층이라는 비판은 사라졌으며, 승려가 호적에 등재됨으로써 승려는 국가체제 내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¹⁾ 도총섭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승정체제와 승려의 호적 등재에 따라 불교계는 국가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승려도 백성의 한 부류로 인식되었다.⁴²⁾

41)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42)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p.285-286 ; 조선후기의 승정체제 및 승군 동원체제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을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박세연, 2013,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휴정과 선수의 문도를 중심으로 재편된 불교계는 여러 문파를 형성해 갔으며, 문집 간행, 비석 건립을 통해 임제태고법통설을 천명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임제종의 정통성을 강조한 법통설을 천명하긴 하였으나, 선교겸수 사상에 기반한 강학체계인 이력과정을 강화하였으며,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해 이력과정의 사기류 저술도 편찬되었다. 이력과정은 강학체계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 불교의 사상체계이자 선과 화엄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교판 체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력과정 불전의 이해는 불교계의 과업으로 여겨졌다. 강학 교재로서의 수요에 따라, 이력과정 교과 불전을 중심으로 불전이 다량 간행되었다. 한편 수행체계인 삼문수학도 중시되었는데, 선과 교뿐만 아니라 염불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수행체계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파 중심의 불교계, 임제태고법통설, 이력과정, 삼문수학 등의 특징은 근현대에까지 전수되어 근현대 한국불교의 토대가 되었으나, 조선말기와 근현대를 거치면서 다소 변모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변화상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조선말기: 19세기

순조대에서 고종대에 이르는 19세기를 조선말기로 규정한다. 조선말기는 불교계가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국가와의 관계 또한 상대적으로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인 시기이다. 조선후기의 성격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지만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후기와 구분된다. 불교계 쇠락의 근거는 우선 불전 간행량, 문집 간행 수, 고승비 건립 수의 감소이다. 18세기와 비교할 때, 불전 간행량은 169건에서 55건으로, 문집 편간은 28건에서 14건으로, 고승비 건립은 84건에서 47건으로 감소하였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불전 간행, 문집 편간, 고승비 건립은 16~17세기에 새로이 나타난 특징적 문화 현상이었다. 그런데 그 간행, 편간, 건립이 17세기나 18세기에 정점을 찍은 후 19세기가 되면 모두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사족의 문집 간행이 조선말기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하면 불교계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며,⁴³⁾ 한편으로 세도정

43)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119; p.163; p.166; p.256.

치로 인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약화돼 있던 19세기 조선의 정치·사회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정에서 승려가 줄고 사찰이 쇠락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이는 그 이전의 실록 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18세기 중엽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후 백성과 승려의 역 부담이 역전되어 승려가 줄고 사찰이 쇠락한다는 우려에 따라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⁴⁴⁾ 그리고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승니(僧尼) 도성 출입 금제(禁制)에 ‘공사(公私)를 물론(勿論)하고 금지(禁止)한다’는 규정이 덧붙여 있다. 종전에는 ‘승인(僧人)으로서 공사(公事)가 있는 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던 규정이 수정된 것인데, 종래에는 도성 주변의 니도(尼徒), 곧 비구니의 출입을 주로 규제하던 금제가 승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변경된 것이다.⁴⁵⁾ 현재로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법제가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규 변경을 통해 국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가 종전에 비해 소원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면 조정에서 승려가 줄고 사찰이 쇠락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논의 기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그 대책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의 쇠락과 국가와의 관계 약화의 원인을 현재로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정에서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백성과 승려의 역 부담이 역전됨에 따라 승려가 줄고 사찰이 쇠락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초기까지 도첩 발급에 따라 공식적인 면역(免役) 특권층이던 승려층은, 조정 관료에게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 피역층으로 인식되었는데, 명종대를 기점으로 점차 국역 체제에 편입돼 갔고, 숙종 1년(1675)에 이르러 호적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⁴⁶⁾ 반면, 조선전기에는 사족층이라 하더라도 관직에 있지 않으면 균역을 부담해야 했으나, 조선후기가 되면 사족이

44)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40.

45) 손성필, 2013b, 앞의 논문, pp.62-67.

46) 장경준, 2006, 앞의 논문;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39-41.

라는 신분만으로도 균역이 면제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면역 특권층이 승려층로부터 사족층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승려가 담당한 역은 백성의 역보다는 가벼웠는데, 18세기 중엽 균역법의 시행으로 역전되어 백성의 역보다 무거운 수준이 된 것이다. 당시 조정은 이념적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인해 승려가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국가와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면 그러한 논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조선말기 불교계의 쇠락은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역 부담 가중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조선말기로 갈수록 신분 질서가 동요하여 사족층의 외연이 확대되는데, 사족층의 수적 증가에 따른 승려층 지위의 상대적 하락도 승려 감소와 사찰 쇠락의 주요 요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⁴⁷⁾ 그러므로 조선말기 불교계의 쇠락과 국가와의 관계 약화 요인에 대해, 불교의 쇠퇴가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결정론적 시각이 아니라, 자료의 분석과 역사적 통찰에 기반한 다각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조선시대 불교 역사상은 이러한 조선말기 불교계의 쇠락상을 근대 지식인이 조선시대 전반으로 일반화하면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V. 맺음말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크게 쇠퇴론과 전·후기론의 두 가지 시기구분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시대 불교 500년의 역사는 이 두 가지 단편적 시기구분 인식이 뒤섞여 형상화돼 왔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탄압에 따른 필연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부흥하였다고 하는 서사(敍事)는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 인식과

47) 손성필, 2013a, 앞의 논문, p.213.

역사상은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민주의, 민족주의, 호교주의, 단선적 역사발전론 등의 근대적 관념의 강한 영향 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카하시 토오루는 『이조불교』를 통해 쇠퇴론과 무력론의 관점으로 조선시대 불교사를 형상화하여 큰 영향을 미쳐 왔고, 해방 이후에도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 조선후기 불교계의 부흥이 주로 강조돼 왔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불교사 자료는 종류가 많고 양도 많다. 여러 종류의 불교사 자료들을 그 성격에 유의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사의 지속과 변화 양상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불교정책 노선의 변화가 거듭됐고 간행불전, 승려문집, 고승비 등의 여러 불교사 자료의 생산 자체의 변화가 집중됐다는 점과 19세기에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러 자료의 생산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불교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되 불교정책의 변화와 불교계 동향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를 15세기의 조선초기, 16세기~17세기전반의 조선중기, 17세기후반~18세기의 조선후기, 19세기의 조선말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이러한 4시기 구분론은 조선시대 불교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설(假設)한 것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는 조선 초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500년간 지속과 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 불교계의 다양한 층위와 측면을 고려하여 불교사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와 불교계 간의 관계를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조선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계의 변화도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종파, 교단, 종교, 공인 등의 사례와 같이 근대적 개념의 부주의한 사용은 역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조선말기 불교계의 쇠락상을 근대기에 조선시대 전체로 투영하여 일반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대 불교

학자의 근대 불교중흥론 및 근현대 역사학계의 단선적 역사발전론에 따라 조선시대 불교가 소외돼 왔다는 점, 역사상의 반성과 모색을 위해서는 불교사 자료 자체에 대한 통찰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와 성찰을 통해 조선시대 불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심화·확장돼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류

- 『全國寺刹所藏木板集』(박상국 편, 문화재관리국)
- 『朝鮮王朝實錄 佛教史料集』(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가산불교문화연구원)
- 『韓國佛教全書』(동국대출판부)

2. 저서류

- 권상로, 1934, 『朝鮮佛教史概說』(1998, 『退耕堂全書』 8, 전서간행위원회)
-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 김영태, 1986, 『한국불교사』, 경서원
- 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2004, 『曹溪宗史: 고종세편』, 조계종출판사
- 이봉춘, 2015,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 江田俊雄, 1977, 『朝鮮佛教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 高橋亨, 1929, 『李朝佛教』, 寶文館
- 黒田亮, 1940,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3. 논문류

- 김상현, 2002, 「朝鮮佛教史 研究의 課題와 展望」, 『불교학보』 3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김용태, 2013,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한국불교학회
- 박세연, 2013, 「17세기~18세기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미, 2015, 「조선시대 佛教式 喪·祭禮의 設行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해당, 1996, 「己和의 佛教思想 研究」, 서울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성필, 2012, 「17세기 전반 高僧碑 건립과 조선 불교계」,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 _____, 2013a,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b,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40, 보조사상연구원
- _____, 2013c,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학적 의의」, 『서지학연구』 54, 한국서지학회
- _____, 2013d, 「조선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한국사상사학회
- _____, 2014a, 「虛應 普雨의 불교사적 위상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 _____, 2014b,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 이봉춘, 1998,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 조선중기 사회와 문화』 31, 국사편찬위원회
- 이종수, 2010,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 2006,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정병삼, 2005, 「16세기 조선불교계의 변화」, 『(이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역사와 개혁』, 시간의물레

A Review of the Periodization of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Sohn Seongphil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ere are two approaches to periodizing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one, Buddhism steadily declined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following official policy of early Joseon, while the other approach divides Buddhist history into before and after the Imjin War (1592-1598). Both these approaches simplify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a great deal. The approaches do not draw on empirical material, but are strongly influenced by modern notions of colonialism, nationalism, etc. In particular, Takahashi Toru has had a big impact by claiming a decline of Buddhism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 scholars have stressed that Buddhism was revived on the occasion of the Imjin War.

However, there is much and diverse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study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Whe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aterial available is undertaken, the conventional periodization often does not fit. In particular, while Buddhist policy changed repeatedly, most material on changes in policy is from the 16th century and early 17th centur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Buddhism waned, the production of several material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19th centur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se Buddhist policy changes, the trend in the production of material and recent research,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early, middle,

late, and closing periods. I expect that this periodization can deepen the discussion on Buddhist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and achieve critical reflection on research methods and perspectives.

Keywords

Joseon Dynasty, Buddhist history, periodization, the middle Joseon, the closing Joseon, Takahashi Toru

2015년 11월 02일 투고

2015년 12월 04일 심사완료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